

유지혈액투석 환자의 식이교육을 통한 Ca×P 총족률 지표 개선활동

김원목기년 봉생병원 혈액투석실

박현주, 박미영, 하정인, 최미숙 외 22명

사업의 배경

우리나라의 신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수 중 혈액투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매년 5%씩 증가추세이다(대한신장학회, 2012). 20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혈액투석 질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하기 위해 기관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. 혈액 투석 적정성 평가는 치료환경을 파악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환자들의 측면에서는 의료기관의 정보 및 이용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
현재 본원에서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다. 2010년(2차) 본원은 2등급의 결과를 받았다. 문제 분석 결과 지표 18항목 중 혈청 Ca×P 총족률에서 평균점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. 혈청 Ca×P 총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칼슘/인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과 인결합제 복용이 필요하다. 투석환자의 식이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식이교육을 통해 고인혈증을 보정하고 다가올 4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Ca×P 총족률 지표를 향상시켜 혈액투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QI를 실시하고자 한다.

핵심지표

1. 고인혈증 관리를 위한 식이교육 지침 보완
2. 대상자의 Ca×P 총족률 50% 이상 향상

자료의 수집

1. 조사 대상; 2013년 3월 월초검사에서 Ca×P 총족률 미충족 대상자 53명 중 정신지체, 정신질환, 치매환자, 교육 거부한 환자 7명을 제외한 46명을 선정
2. 조사기간
 - 1) 사전 조사; 2013년 3월 11일~3월 25일 문헌조사 및 OCS 상 3월 월초검사 결과
 - 2) 식이요법 이행 사전 실태 조사(설문지); 2013년 4월 1일~4월 15일
 - 3) 문제점 도출 및 고인혈증 식이교육 지침 보완; 2013년 5월 1일~6월 10일
 - 4) 혈액투석실 간호사 교육; 2013년 7월 1일~7월 8일
 - 5) 1차 개선활동(식이 체크리스트); 2013년 7월15일~7월 29일
 - 6) 2차 개선활동(기입식 식이일지); 2013년 8월12일~8월 26일
 - 7) 식이교육 만족도/인지도 검사; 2013년 9월 2일~9월 7일
3. 자료 수집 방법; 조사 기간 내 대상자 혈액 검사,인결합제 처방 일수 확인, 식이 체크리스트와 기입식 식이일지의 일일 인 섭취량 계산값, 만족도/인지도 설문지 결과 수집

개선 전략

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활동을 시행하였다.

1. 1차 개선활동; 기존의 식이요법 교육지침을 수정, 보완하여 칼슘/인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 지침을 마련하였다. 교육 담당간호사 제도를 시행하였고 대상자에게 식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하여 매 투석시마다 가져오도록 교육하였다. 체크리스트 점검 시 식이교육, 규칙적인 약물복용 교육, 혈청 검사를 실시하였다. 그 결과 Ca×P 총족률 대상자의 수가 46명에서 23명으로 50% 개선되었다. 인결합제 복용 불이행자는 13명(28%)이다.
2. 2차 개선활동; Ca×P 총족률 미충족자 21명을 대상으로 실천이 용이하고 자세한 1:1 개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입식 식이일지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였다. 담당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기입식 식이일지를 기록하여 가져오도록 하고 매 투석시마다 실제 기록한 음식의 인 섭취량을 계산하여 기록하였다. 그 결과 교육 후 Ca×P 총족률 대상자의 수가 21명에서 9명(42.9%)으로 개선되었다. 2차 교육 후 개인별 일일 인 섭취 권장량을 초과한 환자는 5명(23%)이고 인결합제 복용 불이행자는 5명(23%)으로 감소했다.

결론 및 제언

Ca×P 총족률 미충족 대상자 46명을 선정하여 식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식이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식이 교육을 통해 1차 개선활동을 시행하였다. 1차 교육 후 Ca×P 총족률이 23명으로 50% 개선되었으나 Ca×P 총족률 미충족 대상자를 재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2차 개선활동으로 기입식 식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21명에서 9명으로 42.9% 개선되었다. 1차 개선활동을 기준으로 Ca×P 총족률은 46명에서 35명으로 76% 개선되었다. 이후 교육 대상자들에게 만족도/인지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이일지 유용성 여부 문항에서 82%가 만족하였다.

본원 혈액투석실은 1인 1 Bed당 1대의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케이블 방송 설치 상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시청각 매체로 전환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. 또한 기입식 식이일지를 작성하고 일일 인 섭취량의 계산으로 인해 환자들이 압박감을 느껴 단 백질 섭취를 기피하는 경향도 보였다. 식이 조절의 양면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이 보다 실천이 용이하고 현실적인 식이교육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혈액투석 의료급여환자들의 정액수가제도로 다양한 인결합제 처방이 어려워 더더욱 Ca×P 총족률 지표를 향상시키기에는 제한점이 많았다.